

아침 일찍 잠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고 뒤뜰을 보니 나무에 곱게 물들은 나뭇잎이 여기저기로 바람에 떠밀리고 있었다.

“정말 자연은 아름답구나”

녹음이 짙을 땐 마냥 원숙하여 평생을 푸르게 살것만 같았는데 벌써 낙엽이 되어 저렇게 대지로 사라지는구나 하는 무상함이 마음 한편으로 다가옴을 나 자신도 모르게 느끼고 있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잠시라도 느끼고 무상함도 덤으로 느낄 썸 아내로부터 “식사하세요”라는 소리로부터 분주하게 돌아가는 사회 속으로 빨려들어 간다

당연히 그랬고 그래야 하는 것처럼...

아무튼 세월 앞에 만물은 순응의 진리에 역행할 수 없나보다.

어느새 출근하여 책상에 앉아 민생고를 해결하고 있던 차에, “딩동댕 구급출동!, 구급출동! 화곡본동 어디 어디로 구급출동 하세요”

출동소리가 들린다.

출근하면 이제 출동벨소리가 당연한 것처럼 몸에 배어있고 나도 모르게 몸이 움찔움찔한다.

할머니가 집에서 나오다 빙판길에 넘어져 골절을 동반한 출혈로 지나던 한 아주머니가 신고를 했다고 한다.

위의 상황은 올 1월 구급사례로 적었던 사건인데 벌써 겨울철이 눈앞에 와 있다.

겨울은 유난히 화재·구조·구급 출동이 30~40%이상 많아지는 계절이다. 요즘은 신고정신이 향상되고 요령 또한 성숙해져 있는 것을 느낀다.

모든 신고자를 생각하면 안전부절 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지만, 이렇게 겨울철이 유난히 길고 지루한 것은 출동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유형별 사고발생 현황을 보면 화재·가스·교통·지진 등 다양하고 복잡한데 이러한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는데 더욱 큰 것은

부상과 심리적으로 누적되는 간접피해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온 가족이 파멸되고 장래와 희망이 좌절되는 엄청난 피해가 동반되는 재난사고는 사전에 철저한 점검과 준칙 준수만이 예방할 수 있다.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항상 수반되는 문제가 응급환자 처리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보가 되기 때문에 처리요령 등 기본적인 사항만큼은 꼭 알아두어야겠다.

한번도 심각한 상황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러한 것이 어떠한 것인가 깨달을 수도 상상할 수도 없다. 어떠한 설명으로도 그러한 상황은 설명될 수 없다.

영화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시각적 영상효과에 의존하기 때문에 실제상황을 상상하기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불감증으로 인한 사건사고로 인하여 소방관들과 희생자들은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마루바닥을 기기도 하고 죽음에 빠져들기도 한다.

그 황당한 현실을 겪은 이들은 자기자신이 준비하기 보다는 정부의 구조와 복지를 탓하고 있다. 무엇보다 안전사고는 예방이 최선이다.

이제 환절기가 지나고 겨울의 입구에 와있는데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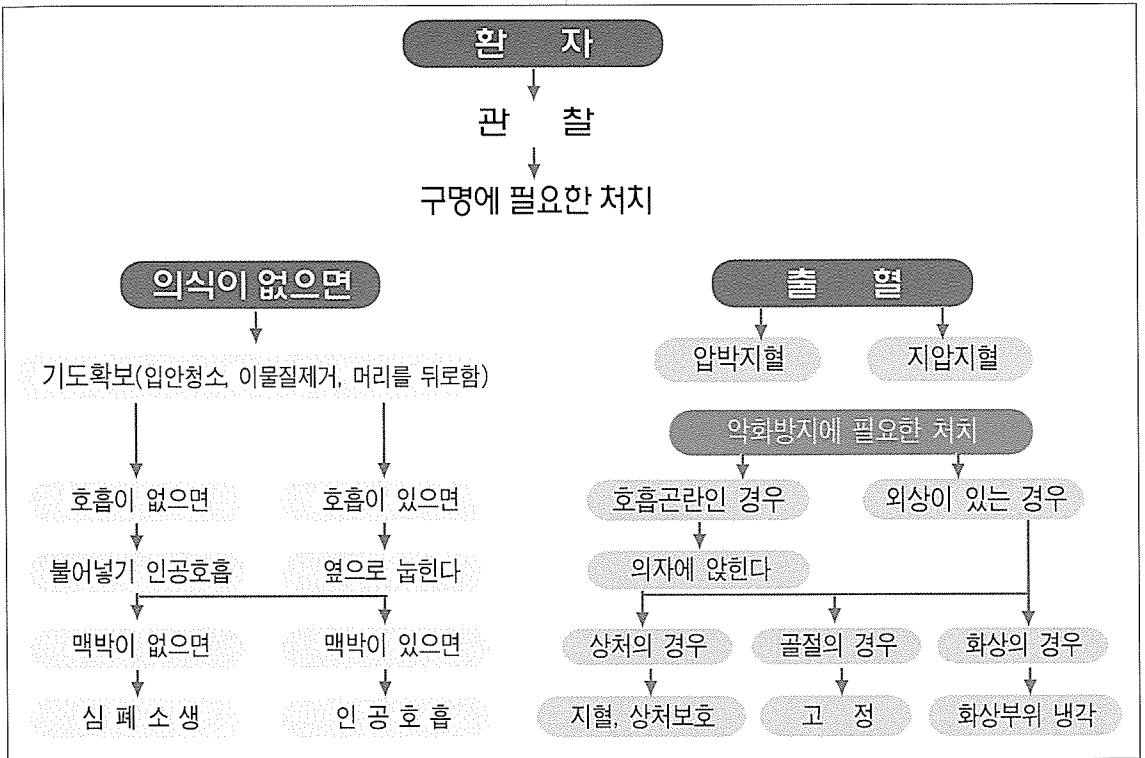
사건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이지만 언제 어디에서 돌발사고와 질환이 생겨 생명이 위험에 빠지는 사례가 부쩍 늘어나는 계절이기도 하다.

우리소방서에서는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 월동기 안전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민들의 깊은 참여가 없으면 별 실효를 거두기가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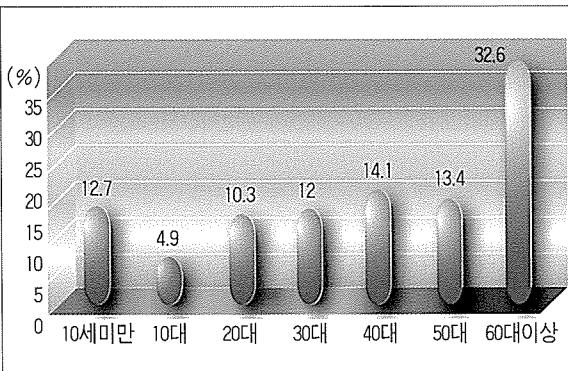
겨울철에 많은 돌발사고란 빙판길 사고와 온도차이에서 오는 노인들의 질환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미리 대처하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119 구급대를 이용하는 환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60세 이상 노년층이 32.6%로 가장 많으며 그외 연령대는 엇비슷하게 분포되어 있다.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 구급이송 환자의 연령 비율



◎ 빙판길 사고로 골절을 당했을 경우 처리

- 환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환부를 손으로 잡고

고정시킨다.

- 골절부위에 상처가 있다면 깨끗한 헝겊이나 패드로 환부를 감싼 후 압박하여 지혈한다. 상처부위에 부드러운 패드를 뒀후 붕대나 헝겊으로 감아준다.

- 다리의 경우 무릎과 발목 부위에서 함께 묶은 후 상처부위의 윗부분과 아랫부분도 묶어준다. 팔에 골절상을 입었을 경우 삼각건을 대고 팔과 몸을 붕대로 감는다.

- 응급차를 이용 병원으로 이송한다. 가능하다면 상처부위를 위로 올린 후 받쳐주며 10분마다 팔이나 발의 혈액순환을 확인한다.

산업기술의 발전과 교통수단의 발달과 더불어 의학기술과 의학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첨단화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편리해지고 첨단화 되어지는 만큼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와 사고 또한 복잡해지고 빈발해지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7]

지명천 (강서구 소방서 홍보실장)